

2021. 08. 02(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08월 02일 오전 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센터장	박 현 이	02)771-7770(501)
대외협력팀장	박 다 위	02)771-7770(301)
담 당 자	한 누 리	02)771-7770(302)
홈페이지	www.seoulwithu.kr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7쪽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제2회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에 총 49개의 에세이 접수
- 인하우스 디자이너, 마케터, 학원강사, 교사 등 사무직뿐 아니라 예술계 종사자, 캐디, 콜센터 직원, 공장 노동자, 주차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 드러내
-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와 문제 해결 과정을 수집,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인식 개선 및 피해 지원에 활용 기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센터장 박현이)」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49편의 수준 높은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 나/너/우리 이렇게까지 해 봤다>라는 주제로, 보다 유연하고 심도있는 소통을 위해 에세이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 상세 주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섰던 경험, 연대의 순간’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혹은 사건 해결을 위해 우리 회사가 노력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했던 것, 혹은 도움이 되었던 것’, ‘직장 내 성차별적인 문화와 관행을 변화시켰던 이야기’, ‘내가 꿈꾸는 성평등한 일터’였다.
- 성희롱 예방 및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 가운데 회사의 노력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했거나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지지가 되는 동료와의 연대”가 많았던 점에 주목할만하다.
- 지난 7월 22일, 내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 5명, 가작 25명이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인 서울위드유상으로는 ‘저랑 같이 가실래요?’(미아), 위드유상으로는 ‘국정감사에 진출한 내 사건 이야기’(보라), ‘마스크와 핸드크림, 그리고 탄원서’(조\*지), ‘재난행동요령’(고망), ‘절망을 아는 우리의 희망 노래’(정\*주)가 선정됐다.
- 심사위원회장으로 선출된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연구활동가는 “진솔하고 수준 높은 참가작들이 접수되었다”면서 “골프장, 호프집, 초등학교, 병원, 광고회사,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현실이 에세이를 통해 가감 없이 드러났다”라고 짚었다.

- 그 밖에도 인하우스 디자이너, 예술 계열 종사자, 캐디, 콜센터 노동자, 공장 노동자, 군인 등의 참가자가 직종별 성희롱 경험과 그에 관한 대응 경험을 여실히 드러냈다.
- 그 외 심사평으로는 “여전히 성희롱이 퇴사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신상아 서울노동자회 회장), “한국에서 여성은 안전하다,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정치인에게 전하고 싶은 에세이”(손희정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 한겨레21 박다해 기자는 가장 인상 깊은 점은 “피해 생존자들이 나의 일이었을 때는 참다가도 같은 일을 다른 동료가 겪자 용기를 냈다는 것”이라며 “연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한 경험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다”고 평했다.
- <김지은입니다>의 저자, 김지은 작가는 “공모전 참여자들의 용기 있는 말과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시민들의 에세이를 웹툰,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공모전 취지를 지속적으로 살려 나갈 계획이다.
- 센터는 에세이 30편을 단행본(비매품)으로 출간해 대대적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페인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동시

에 전자책으로도 출간해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리디북스 등 온라인 도서 플랫폼을 통해 공유한다.

- 보도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seoulwithu.kr](http://www.seoulwithu.kr)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 (www.seoulwithu.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02-771-7770)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포스터. 끝.

※ 붙임2. 수상작 내용 요약 (표)

#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 공모 주제 (중복선택 가능)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 나/너/우리 이렇게까지 해 봤다>

-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섰던 경험, 연대의 순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혹은 사건 해결을 위해 우리 회사가 노력한 사례
-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했던 것, 혹은 도움이 되었던 것
- 직장 내 성차별적인 문화와 관행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 내가 꿈꾸는 성평등한 일터 말하기

## 응모자격

개인 (서울시민, 서울시 직장인 누구나)

## 일정

공모 기간 2021년 5월 3일(월) ~ 7월 9일(금) 18시  
최종 결과 발표 7월 30일(금) 예정

## 접수방법



- 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 ② 이메일(withu@seoulwithu.kr)로 작품 제출
- \*파일명 : 응모분야\_제출일\_신청자명 (ex : 에세이\_20210503\_김OO)

##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 / 총 상금 670만원)

부문	서울위드유상(1인)	위드유상(4인)	가작(25인)
에세이	140만 원	70만 원	10만 원

## 문의처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전화 02-771-7770(내선번호 302)  
이메일 withu@seoulwithu.kr

제목	수상내역	내용
저랑 같이 가실래요?	서울 위드유	<p>2년 전 내가 겪었던 성희롱, 나보다 어린 다른 선생님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여성과 연대하여 성폭력 경험에 대응하게 되었고, 연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p> <p>“그녀가 먼저 나와 연대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나를 치유해주고 사건에 뛰어들 용기를 주었다. 며칠 뒤 그녀와 나는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학원장을 형사 고소했다.”</p>
마스크와 핸드크림, 그리고 탄원서	위드유	<p>후배가 겪은 성희롱. 성희롱인지 아닌지 자신을 의심하는 후배를 도와주기로 했다. 다른 피해자를 찾아 동료를 모으고, 여러 사람의 피해 내용을 종합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이야기. 가해자 징계까지의 과정과 연대의 기쁨.</p> <p>“조사할 때요. 중간중간에 선배님이랑 눈 마주치는데, 어쩐지 모두들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혼자서는 못 했을 거예요.”</p>
절망을 아는 우리의 희망 노래	위드유	<p>초등학교 평교사가 겪은 성희롱. 폐쇄적인 교직 사회. 성희롱 지적이 평판 조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돌아왔다. 경찰서와 교육청에 신고했고, 문제 상황 당시의 녹음 파일을 들은 교직원들이 청원서와 서명으로 연대해 주었다.</p> <p>“관리자가 아무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청원서에 서명을 해주었다. 평교사 사회가 개인주의적이라고 했던 얘기는 취소해야 할 것 같다.”</p>

<p>국정감사에 진출한 내 사건 이야기</p>	<p>위드유</p>	<p>콜센터 내 성희롱. 성희롱 사건 고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법 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당해고, 노동부 진정, 고소, 국정감사까지 계속 싸우다 반성폭력 활동가가 된 나.</p> <p>“나는 이긴 걸까 진 걸까 꽤 여러 번 생각해봤다.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꽤 오래 생각했다. 남들은 작은 사건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을 계속 키웠다. 사건이 커질수록 이상하게 힘이 났다.”</p>
<p>재난행동요령</p>	<p>위드유</p>	<p>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아가씨, 학생, 언니, 알바, 딸내미, 며느리”로 대하는 고객들을 만남. 지긋지긋한 성희롱 경험. 신고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았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은 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 선택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크다. 재난 같은 성희롱, 재난행동요령이 필요하다.</p> <p>“이것은 “인생은 실전이야”를 맛보여준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도 아니고, 수치심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이야기도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간 일터에서 ‘일상’을 침해당한 일이고, 단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선택한 이야기이다.”</p>